

## 養心堂 趙晟의 시 세계

조용호\*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시의 유형 구분을 위한 범주화
3. 유형에 따른 시인의 의도와 정서
  - 1) 勸誡型(A) - 면려와 각성의 권유
  - 2) 親交型(B) - 친화와 교제의 회구
  - 3) 自述型(C) - 간난과 고뇌의 토로
  - 4) 自照型(D) - 안분과 자중의 다짐
4. 맺는 말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 전기 중종~명종 대의 학자이자 문인인 趙晟의 시 세계를 이해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데 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작시의 동기와 주제 형상화에 핵심이 되는 제재를 구획의 기준선으로 삼아 그의 시를 유형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전달 동기가 우세하면서 人事를 제재로 한 것(A유형), 전달 동기가 우세하면서 物象을 제재로 한 것(B유형), 표현 동기가 우세하면서 인사를 제재로 한 것(C유형), 표현 동기가 우세하면서 물상을 제재로 한 것(D유형)이라는 4개의 범주가 만들어졌다.

4개의 범주는 모두 각각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에 배속된 시들에서는 시인의 의도와 정서가 유사하게 표출된다. A유형(勸誡型)에서는 수신자에게 면려와 각성을 권유하는 의도가 주로 나타난다. B유형(親交型)에서는 수신자에게 친화와 교제를 회구하는 정서가 주를 이룬다. C유형(自述型)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간난과 고뇌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진다. D유형(自照型)에서는 안분과 자중에 대한 다짐이 주된 정서를 형성한다.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성의 시에는 개인적 고통 및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찰적 인간의 모습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다. 이런 사실은 그가 평생 여러 가지 질병과 싸워왔고, 학문 탐구와 제자 교육에 인생을 바친 사실과 관련이 깊다. 그는 전형적인 사대부 문학도 창작했지만, 남달랐던 개인사적 국면 때문에 형식과 내용과 주제 면에서 색다른 시도 적잖이 지었다. 특히 서간시는 그의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특수한 양식인데, 이런 형식을 창조한 것만으로도 그가 한국문학사에 끼친 공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양심당, 조성, 작시 동기, 핵심 제재, 서간시

## 1. 들어가는 말

清江 李濟臣(1536~1584)의 『清江先生詩話』에는 養心堂 趙晟(1492~1555)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sup>1)</sup> 이는 조성이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고명한 선비이자 문인이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그는 조광조의 문인으로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학덕으로 명망이 높았다.<sup>2)</sup> 中宗이 3품 이상의 東班과

1) 趙令晟龍門之伯也 以賢德稱世 嘗夢遊三角山作詩 有愛月非爲惑 貪山不害廉之句 有詠梅 一枝三枝高 三點四點白之句 嘗患心疾 鑿池名養心池 種藕名養心花 皆有詩自警云[(영(조성의 벼슬 義盈庫令을 지칭함) 趙晟은 용문(趙昱)의 형님인데 어진 덕으로 세상에 칭해졌다. 한번은 꿈에서 삼각산에 놀러 가서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달은 사랑해도 미혹되지 않으며 산은 탐내도 청렴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매화를 노래한 시에는 ‘한 가지 두 가지 높고 세 송이 네 송이 희다’라는 구절이 있다. 일찍부터 심장 질환을 앓았는데, 연못을 파서 양심지라 명명하고 연을 심어 양심화라 명명한 뒤에 이 모두에 시를 제하여 스스로 경계를 삼았다]. 그의 문집에서는 꿈속에서 지었다는 시구를 찾을 수 없지만, 매화를 읊은 시구는 6수로 이루어진 <次柳子厚早梅韻贈僧元珪>의 다섯 번째 수 頷聯에 ‘一枝二枝瘦 三點四點白(한 가지 두 가지가 아유했는데 세 송이 네 송이씩 희게 피었네.)’이라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

2) 乾隆 5년인 1740년(영조 17년) 5월에 조성에게 내려진 교지를 보면, 그를 通政大夫

2품 이상의 西班들에게 逸士를 추천하라는 명을 내렸을 때, 형조판서 柳仁淑이 천거한 인물이 바로 牛溪 成渾의 아버지인 成守琛과 조성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sup>3)</sup> 그는 뒤에 『養心堂集』이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이것은 그의 아들 舜賓이 수습하고 문인 경상감사 朴啓賢이 동문인 경산 군수 鄭彦珪에게 의뢰하여 1568년에 간행한 유고집이다.

조성은 20대 중반부터 앓게 된 심장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기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학문 탐구와 제자 양성의 길을 걸었다. 가깝게 멀게 혼맥으로 연결되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沈貞, 李長坤 등이 조광조를 제거한 기묘사화를 주도하거나 사건에 깊이 관여된 사실을 목도한 것도 출사를 단념한 또 다른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애초부터 현달한 仕宦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과는 다른 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는 다방면에 능통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남긴 학적 저술이나 시문은 매우 적다. 게다가 문집에 실린 시편들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허술하고 무질서하게 배열된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조성의 문집 『양심당집』에 수록된 시편 중에는 그가 주변인들에게 지어 주거나 화답한 것이 많다. 시를 통해 교유한 인물들은 모두 당시에 내로라 하는 가문의 일원이었다. 이들의 면면을 추적하면 대개 그와 학맥이나 혼맥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그들은 거개가

---

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으로 추증하는데, 사유는 그가 ‘以先正臣 趙光祖門人 學德甚高’였다. 이는 사후에도 그의 학덕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 3)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7월 16일 기사.
- 4) 조성은 동시대의 인물들에게 지어주거나 창화한 시의 제목으로 수신자를 함께 기명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그의 字號나 성씨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체를 同定하기가 매우 어렵다. 『양심당집』을 국역한 趙南權은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밝혀냈지만,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그는 〈次宜中韻〉이라는 시에 나오는 의중을 李義健(1533~1621)이라고 비정했는데, 이는 나이 차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조야의 명망가였으며, 서로 간에 학문과 시대정신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공유하고 전수한 동병상련의 지성들이었다. 그는 또 成守琛, 李滉을 비롯한 당대의 명유들과 깊이 교류하였으며, 朴啓賢(1524~1580), 成世平(1516~1590), 沈守慶(1516~1599) 같은 명환을 비롯해 다수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그는 단지 남긴 저술과 시문이 적다는 이유로 일단 무시하고 말 인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도 그는 학문이 응혼하여 성리학은 물론 제자백가와 도불 그리고 의학, 음악학, 천문학, 수학 등의 실용 학문에도 조예가 매우 깊었던 통유였다.<sup>5)</sup> ‘계몽, 올려, 산수 등 의문이 되는 것을 질문하면 메아리처럼 응답하여 두드릴수록 더욱 끝이 없었으므로 만날 적마다 망연자실한 채 돌아오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이황의 회고<sup>6)</sup>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養心堂集』 제2권에는 의서의 편찬과 관련된 글인 〈明醫雜著跋〉, 음악과 관련된 글인 〈論琴〉과 〈律呂疑問〉, 수학과 관련된 글인 〈三百題解〉가 실려 있어서, 그런 언급들이 실상과 부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는 실제로도 소실된 천문관측소인 欽敬閣을 재건하고 천문 관측 방법을 재정립하거나 종묘악을 정리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여, 광대한 학문적 성취를 직접 행동으로 입증한 바가 있다.<sup>7)</sup> 하지만 그의 학자적 위상과 공적에도

---

보나 정황상으로 보나 마땅히 심사순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기묘사화의 주역인 沈貞은 沈思恭(1490~1556), 沈思遜(1493~1528), 沈思順(1496~1531) 3자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심사공은 조성의 둘째 여동생과 시돈지간이었고 심사순의 아들 심수경은 조성의 제자였다. 문집에는 조성이 심사공과 심사순에게 준 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심사순과도 시를 통해 교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5) 이런 사실은 『양심당집』을 발간하게 된 경위를 서술한 박계현의 서문 및 심수경과 이황의 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 ‘質以啓蒙律呂算數等所疑 君應酬如響 愈叩而愈無窮 余每一見之 未嘗不茫然自失而歸’ 李滉, 〈養心堂集跋〉

7) 조성의 생애와 음악에 관련해서는 양승경, 「양심당 조성의 생애와 음악관-시-문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는 빈약함을 면치 못한다.<sup>8)</sup> 그에 관한 논문들은 대개 시 몇 수를 근거로 하여 그의 업적이나 학문의 일면을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시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을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sup>9)</sup>

그의 시에는 장시와 유종원의 〈早梅〉를 차운한 것이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書簡詩<sup>10)</sup>의 성격을 지닌다. 내용상으로는 친우나 제자들에게 주

중심으로-, 한국국악학회, 『한국음악연구』 47, 2010, 189~210쪽을 참조할 것. 그러나 양승경이 열거한 조성의 생애는 오류도 있다. 예컨대 그는 논문에서 松堂 趙浚이 그의 6대조이며 李長坤은 외종형이라고 하였는데(194쪽), 『평양조씨대동보』에는 조성의 직계 선조와 조준은 이미 그 앞 세대에서부터 갈라진 것으로 나와 있어, 조준이 항렬상으로는 그의 6대조뿐이지만 직계로 6대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장곤의 부친 李承彦과 조성의 부친 趙守誠은 각각 효령대군의 손자인 春陽君 李徠의 첫째와 셋째 사위였기 때문에, 1474년생인 이장곤은 1492년생인 조성의 이종형이지 외종형이 아니다.

- 8) 조성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연구된 논문은 양승경의 것을 포함하여 3편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변영희, 『양심당집』에 표현된 주역의 교육적 요소 연구-양심당의 주역 관련 시를 중심으로-, 『白岳論叢』 1, 동방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8, 305~336쪽; 안은수, 「16세기 성리학자 조성의 양생론」, 『우계학보』 37, 사단법인 우계문화재단, 2019, 122~147쪽.
- 9) 전체 2권으로 구성된 『양심당집』에는 제1권에 도합 134수의 시와 제2권에 불과 예닐곱 편의 산문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남겨진 시문이 적은 것은 그의 시가 사후에 제대로 수습 또는 이행되지 못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는 이제신의 『청강시화』에 언급된 시가 문집에 빠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추정할 수 있다. 남겨진 글은 그의 소시에 쓰인 것이 많다는 박계현의 『양심당집』 서문을 통해서도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다. 『양심당집』에 수록된 시편 가운데 그의 자작시는 127수이다. 타인의 작품으로 문집에 수록된 것은 7수인데, 이종형 이장곤이 화답한 시 1수, 제자 박계현의 부친이자 사돈지간인 朴忠元이 보낸 5수, 그리고 벗으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선생에게 매화시 22수를 받고 답한 시 1수이다.
- 10) 서간시란 문자 그대로 시로 쓴 편지를 의미한다. 서간은 일반적으로 산문으로 작성하지만, 조성의 문집에 수록된 산문 편지는 단 3편에 불과하다. 그는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대부분 시에 담았는데, 이런 서간 양식의 시는 사대부들의 문집에서 매우 낯설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만 매우 이질적일 수도 있는 이러한 양식은, 조성의 시를 고찰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라고 하겠다.

는 권계의 말이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자신의 처지와 심사를 솔직하게 토로한 시가 많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가볍고 명랑하기보다는 진중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시들이 많다. 이는 선경후정을 선명하게 구사하거나 산뜻한 경물시나 재기발랄한 시어와 표현으로 밝은 분위기를 고조시켜 명성을 얻은 시인들과는 분명하게 변별되는 지점이다. 이런 특이점은 그의 남달랐던 처지와 시 세계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인이 남긴 시편의 수효를 그 시인의 존재 의미나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인은 마땅히 그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처지와 심경과 변민을 얼마나 진솔하게 표현하고 깊이 있게 담아냈는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를 분석하고 해석한 이후에 행할 일이다. 동시대를 살던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들을 담아낸 문학을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먼저 두루 고찰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야만 다채롭게 전개된 당대의 문학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 따라 우선 조성의 시가 보여주는 변별적 특징을 포함하여 그의 시 세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 한문학사의 지도를 그리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시의 유형 구분을 위한 범주화

『양심당집』에 수록된 시들을 일독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확인하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장시 및 하나의 제목 아래 동일한 압운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연작시가 상당수 존재하며, 옛사람이나 동시대의 지인들 작품에 창화한 시가 많다는 점이다. 내용적으로는 매화를 제재로 삼은 시의 비중이

높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처지와 심사를 토로한 시가 상당수라는 점도 눈에 띈다. 그 가운데 장시는 대개 누군가에게 보내는 서간의 성격을 지니며, 매화시는 유독 당나라 柳宗元의 〈早梅〉를 차운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11)</sup>

편수가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이처럼 다채롭다. 그런데 문집에서 그 모든 시는 무질서하고 체계 없이 배열되었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은 물론 주제적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 전반을 두루 살펴보려면, 그런 다양한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 도구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연구는 그의 시 세계 전반을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첫 번째 시도인 만큼, 먼저 그의 시가 지닌 다양한 측면들을 유형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

시의 유형을 구분하고 범주화하기 위해 고려할 첫 번째 기준은 시를 지은 동기이다. 글의 종류와 형식을 막론하고 또 그 내용과 주제가 어떠한 간에, 모든 글에는 그것을 쓴 이의 집필 동기가 개입되게 마련이다. ‘동기’를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고 정의한다면, 시를 짓는 모든 행위에도 일정한 계기가 개재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동기를 독자와 관련지어 보면, 크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여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이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우세하게 작용

11) 그의 시 가운데 매화를 소재로 한 것은 38수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이는 조선 전기에 매화시를 지은 문인들 중 이황의 107수, 서거정의 80수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하며, 이미 매화시로 주목을 받은 김시습의 23수, 김안로의 34수보다 많은 것이다. 하지만 매화시에 관해서는 집중적이고도 심도 있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후속 작업을 통해 다른 지면에서 논의할 생각이다. 조선시대 매화시의 전개양상과 그 특징 및 개인별 작품 수에 대해서는 신익철, 「조선시대 매화시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165~216쪽을 참조할 것.

하는 것으로 양분할 수 있다. 편의상 전자를 전달 동기가 우세한 시, 그리고 후자를 표현 동기가 우세한 시라고 부르기로 한다. 전달 동기가 우세한 시는 타인을 크게 의식하며 지어진 것이어서, 독자가 비교적 분명하게 상정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표현 동기가 우세한 시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토로하는 데 집중하므로, 대개는 독자가 구체적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시를 지은 의도와 동기를 범주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시가 가진 일반적인 성격과는 달리 조성의 시에서는 전달 동기가 우세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기준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 제재이다. 일반적으로 한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채택하는 제재는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과 현상이다.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외양이나 내면 그리고 인품 정도가 될 것이다.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체험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어떤 것이거나, 사람 자체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두 가지 제재를 각각 物象과 人事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물상에는 사물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사건이나 자연 현상 및 기후와 환경 등 사람의 몸과 정신적 영역을 벗어나 있는 일체의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사에는 사람의 심성이나 세계관과 같은 내면적인 것은 물론, 언행과 처지와 인간관계 등 사람으로서 느끼고 소유하고 수행하는 모든 일이 포함된다. 나는 한시에서는 물상에 관한 것을 제재로 하여 지어진 시가 인사에 관한 것을 제재로 한 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조성의 시에서는 인사에 관한 것을 제재로 취한 시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는데, 이것이 범주화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기준으로 핵심적 제재를 선택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의 시를 범주화하는 데 필요한 2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제 2개의 기준을 선으로 잇고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시켜보자. 수직으

로 그은 Y축은 작시 동기를 지칭하는데, 위에는 전달이 우세한 것을 배치하고 아래에는 표현이 우세한 것을 배치한다. 그리고 수평으로 그은 X축은 핵심적 제재를 지칭하는데, 왼편에는 인사에 관한 것을 배치하고 오른편에는 물상에 관한 것을 배치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4개의 분할면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각각의 면에 (A)~(D)라는 이름을 부여해보자. (A)면에는 인사에 관한 것을 제재로 취하면서 전달 동기가 우세한 시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B)면에는 물상에 관한 것을 제재로 취하면서 전달 동기가 우세한 시들이 들어간다. 또 (C)면에는 인사에 관한 것을 제재로 취하면서 표현 동기가 우세한 시들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D)면에는 물상에 관한 것을 제재로 취하면서 표현 동기가 우세한 시들이 들어간다. 이들 각 면에 속한 시들은 각기 성격이 상이할 것이므로, 다른 유형으로 간주해야 온당하다고 본다. 그들 각각의 유형에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들이 포함되는데, 그 성격은 형식과 내용과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입체적인 것이다.

	작시 동기 (전달 우세)		
핵심 제재 (人事에 관한 것)	(A형)	(B형)	(物象에 관한 것)
	(C형)	(D형)	
	(표현 우세)		

위에서 시도한 범주화는 사실 주제 형상화에 기여하는 제재와 시인의 창작 의도가 다르면 유형과 내포된 정서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추정과 가설의 바탕 위에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성의 시에서 그 가설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유형 구분의 타당성도 인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혹여 설사 그것이 누군가가 직관적으로 구분한 유형과 유사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객관성을 추구한 구획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조성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장시를 쓰다 보니, 인사와 물상을 동시에 소재로 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사실이 문제로 대두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전체 내용을 검토한 뒤, 작시의 의도와 직결되면서 주제 형상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 핵심적 제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아 특정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밝힌다.

### 3. 유형에 따른 시인의 의도와 정서

#### 1) 勸誡型(A) - 면려와 각성의 권유

(A)면에 속한 시들은 인사를 핵심 제재로 하면서 전달 동기가 우세하게 작용한 것들인데, 수신자를 특정하여 권면하거나 각성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은 권계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한 시들에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에는 대략 상대적으로 완곡하고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의 성격이나 인품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아마도 직접적이고 강경한 어조나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강력한 비난과 질책으로만 받아들여질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시는 15수 남짓 되는데, 대부분 장시라서 문집에서 차지하는 지면이나 시구의 수만으로 보면 그다지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성의 문집에 수록된 시에서는 시문 증답의 인적 범위가 폭넓게 관찰된다. 타인에게 받은 시도 몇 편 있지만, 대개는 타인에게 주거나 차운한 시들이다. 그 가운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종형인 李長坤(1474~?)에게 보낸 시이다.

竊聞南還計 남쪽으로 돌아갈 셈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私心頗不豫 제 마음은 별로 편치 않았습시다.  
微禽色斯舉 미물인 새들도 기색을 보며 날아오르는데

君子慎所處 군자라면 의당 처하는 곳마다 조심하셨어야지요.  
 瓜田吾已往 형님은 오이밭에도 이미 가셨었고  
 李下吾既去 오얏나무 밑에도 이미 가셨었으니  
 雖非冠履嫌 비록 갓끈 매고 신발 고쳐 신은 혐의는 아니더라도  
 安能免其語 어찌 논란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況於聽冰耳 하물며 여우가 얼음에도 귀 대보고 건너듯 조심해야 할 것이니  
 孰掩成虎口 누가 삼인성호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략....

- 上李相公表兄(이 상공 형님께 올립니다)<sup>12)</sup>

갓바치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으로 유명한 이장곤은 심정, 남곤, 홍경주 등이 주도한 기묘사회에서 추고관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광조를 제거하는 데 연루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후 조광조의 처형에는 반대하다가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파직을 당하고 만다. 『中宗實錄』에는 기묘사회가 있던 1519년 말부터 1522년 초까지 이장곤을 처벌하지는 논의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그는 1524년 7월에 끝내 파직을 당하게 된다.<sup>13)</sup> 따라서 위의 시는 이장곤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창녕으로 은거할 1522년 무렵이나 파직된 뒤에 낙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이장곤의 이종사촌 아우이면서 조광조의 문인이었고, 이장곤과 조광조 또한 金宏弼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그러니 그는 사회가 전개되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심경으로 고민했을 것이고, 기묘사회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이장곤의 처신에 대하여서도 나름대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인지 이 시에는

12)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시들은 趙南權이 국역한 『養心堂集』의 번역문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오역이 있거나 문맥상 어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곳이 적지 않아 대폭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13) 이장곤의 생애에 대해서는 지승중, 「『琴軒集』 해제」, 『남명학연구』 6, 경성대 남명학연구소, 1996, 177~197쪽 참조.

힐난하는 어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이밭에도 이미 갔었고 오얏나무 밑에도 이미 갔었다는 말은, 이장곤이 기묘사화를 전후한 국면에서 보인 처신에 대한 비판과 힐책으로 판단된다. 처신이 분명하지 못했으니 의심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고, 책임 추궁의 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다. 조성이 아무리 이장곤과 이종시촌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장곤이 자신보다 무려 18세나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조성은 매우 깨끗한 선비이자 비판적 지식인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전략....

宦海足險巖	벼슬살이란 바다는 아주 험난하여서
風波不可榜	풍파 속에서는 노를 저을 수도 없네.
禍福由愛憎	화복이란 애증에서 말미암는 것이라지만
翻覆最無妄	뒤집히는 일은 가장 허망한 것이지.
無嫌屈大才	큰 재주가 꺾였음을 꺼리지 말고
爲學日勉強	학문을 하는 일에 나날이 힘을 쓰게나.
但得就中樂	무릇 그 가운데 나아가 즐거움을 얻는다면
不必圖卿相	반드시 높은 벼슬을 도모할 것은 없으니
窮巷一簞瓢	시골구석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더라도
其意每所做	언제나 그 뜻을 따라야 하네.

....후략....

- 贈彦威七十韻(언위에게 주는 70운)

위에 인용한 시는 142구로 된 5언의 장편으로, 彦威라는 인물에게 준 위로와 권면의 서간시이다. 이 시는 첫 구를 ‘吾友成氏子’로 시작하고 있어서 성씨 성을 가진 누군가에게 보낸 것이 분명하다.<sup>14)</sup> 시에 나타난 어조로

14) ‘吾友成氏子’는 ‘내 친구인 성씨 가문의 자제’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친구 성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에 사용된 어투로 보아서 언위는 조성과는

는 조성과 아주 친숙한 인물이므로, 우선 대상자를 조광조의 문인들 가운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성의 동문은 물론 동시대인들 가운데서 성씨로서 언위를 자로 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추적할 만한 몇 가지 단서는 있다. 첫째, 인용된 부분에 나오는 ‘회복이란 애증에서 말미암는 것이라지만, 뒤집히는 일은 가장 허망하다’는 발언이다. 둘째,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나오는 ‘時維三月三’과 ‘登名三十人 嗟予有所枉’이다. 즉 3월 3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급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가 서른인데 언위는 억울한 바가 있다는 말이다. 이 단서들을 토대로 후보를 추적하여 압축해가면 대략 成守琮(1495~1533)으로 수렴된다.<sup>15)</sup>

막역한 친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에 자제 반열에 있는 인물이었다면, 시의 끝 부분에 나오는 말 즉 그가 사는 곳을 찾을 테니 함께 술잔을 나누며 시부를 읊자고 한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 15) 성수중은 자가 叔玉이고 호는 節孝인데, 아마도 절효는 그의 사후에 친우들이 헌사한 私讞일 가능성이 높다. 성수중은 1519년 10월에 처음 치러진 별시에서 급제했으나, 바로 그의 급제와 관련된 다툼으로 인해 촉발된 기묘사화의 여파로 합격이 번복되어 과방에서 삭제되었다. 권혁명은 성수중이 현량과 급제에서 삭방되었다고 하였으나(권혁명, 「절효 성수중의 생애와 시세계」, 『동양한문학연구』 34, 동양한문학회, 2012, 75쪽), 사실은 중종 14년(1519) 4월에 치러진 현량과가 아니라 10월에 치러진 별시의 급제자 명단에서 삭제된 것이다. 그런데 그 별시의 급제자는 16인에 불과했으니, 조성이 언급한 것은 그 과거시험이 아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단서인 3월 3일에 급제자 발표가 있었고, 이때 급제한 수가 30인인데 언위는 억울한 바가 있다는 말로 짐작을 해보아야 한다. 중종 때 치러진 과거에서 정확히 이에 일치하는 것은 1524년에 치러진 별시뿐이다. 그렇다면 기묘년 별시에서 입격이 취소된 성수중이 1524년에 다시 도전했는데, 전에 己卯黨人으로 몰려 삭방된 사실이 발목을 잡아 아예 입격도 못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제시되는 여러 사건이 모두 아귀가 맞는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성수중의 자가 叔玉이라는 이유로 이견을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를 2개 이상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수중은 숙옥 말고도 언위라는 자를 또 썼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자는 보통 부모나 스승이 지어주는 것인데, 숙옥은 아버지가 지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의 백형인 成守瑾의 자는 伯玉, 중형인 成守琛의 자는 仲玉, 그의 아우 成守瑛의 자는 季玉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스승인 조광조가 그의 성품과 학문하는 자세를 보고 彦蔭라는 자를 지어주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성의 경우에는 자가 伯陽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중종 8년에 치러진 진사시 합격자 명단에는 그의 자가 良器로 기록되어

시에서 조성은 언위가 자신의 아들이 말을 배우는 어린 나이에 서울시 양천구의 서강가에 있는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하였다. 『평양조씨대동보』에 의하면 조성에게는 舜賓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1515년생이었다. 그러니 언위가 성수종이라면, 그는 기묘사화의 광풍이 지나고 삭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520년 초쯤에 그를 찾아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을 공산이 크다. 조성은 1520년에 삭녕(경기도 연천과 철원에 걸쳐 있던 옛 지명)에 갔다가 이듬해 4월 말에야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조성의 다른 시제 <庚辰十二月初二日 歸朔寧得病 明年四月二十六日 自安狹乘舟 越四日到泊臨津>에서 드러난다. 그랬던 성수종이 1524년의 과거에서 또 고배를 마시자, 조성은 예전에 만났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간시는 1524년쯤에 쓴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시에서 조성은 그에게 ‘큰 재주가 꺾였음을 꺼리지 말고 학문에 힘을 써서 그 가운데 나아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높은 벼슬을 도모할 것 없으니 시골구석에 살더라도 언제나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예 과거를 통한 현달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언위에 대하여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위로이자 격려였을 것이다. 또한 해당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대는 동령의 머리말에 사니 내가 그대를 찾겠네. 그대가 곤궁해도 술은 있을 것이니 시부를 지어 슬픔을 충분히 풀어내세나’라고 하였다.<sup>17)</sup>

있다. 이처럼 실제로 자가 돌인 사람도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16) 권혁명은 梁彭孫의 『學圃集』 부록에 실린 <己卯黨禁錄>을 토대로 성수종이 과거에서 삭방된 이후에 사실상 정치적 금고 상태에 묶였다고 보았다. 권혁명(2012), 앞의 논문, 76쪽. 그러나 <기묘당금록>에 실린 모든 사람이 곧바로 정치적으로 금고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장곤이 정계에서 퇴출된 것은 1524년이었고, 柳仁淑은 1521년 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삭직되었지만 십여 년 후에 다시 등용되었기 때문이다.

17) 동령은 북한산의 숙정문 뒤쪽의 산록을 말하는데, 이 마을에는 성수침을 위시한 창녕 성씨들이 모여 살았다. 그러므로 성수침의 아우인 성수종도 같은 마을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양심당은 깊은 마음의 병을 얻은 언위에  
게 동병상련의 정을 깊이 느끼고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시로 적어 보낸  
것이다.

吾嘗接子心	내 일찍이 자네를 받아들일 때의 마음은
接以道與藝	도와 예로써 거두자는 것이었다네.
吾欲見其生	나는 그 활착을 보려고
鋤去荒與穢	호미로 무성하고 더러운 잡초를 없앴고
吾欲見其華	나는 그 꽃을 보려고
栽培非一歲	심고 가꾼 것이 한 해에 그치지 않았으며
吾欲見其實	나는 그 열매를 보려고
徘徊繞樹際	나무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네.
願子勤勿怠	원하노니 자네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爲詩以勸勵	시를 지어 권하고 격려하는 바이네.

- 接花果贈朴啓賢兼示沈守精申宗淮(꽃과 나무를 접붙이는 것으로  
박계현에게 주고 겸하여 심수정과 신중희에게 보인다)

인용한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박계현은 이조판서 朴忠元의 아들로, 조  
성의 조카사위이자 제자였다. 그리고 심수정은 기묘사화의 주역인 沈貞의  
장자 沈思恭의 아들로, 조성의 다른 누이에게서 태어난 생질이었다.<sup>18)</sup> 또  
신중희는 그의 아우인 洗心堂 昱(1498~1557)의 사위였다. 이들 가운데 박  
계현은 조성의 문하에서 수학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심수정과 신중희에 대  
해서는 수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심수정의 경우에는, 조성이 심수  
정의 4촌이자 그의 숙부 沈思遜의 아들 沈守慶을 제자로 두었던 것으로

18) 조성의 누이가 그의 누나인지 동생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성과 아우인 조욱의  
나이 차가 여섯 살이라서 형제 사이에 누이가 한둘 있었을 것 같기는 하다. 또 그의  
부친 조수환은 1471년생이고 그의 모친인 춘양군 李徠의 따님은 1469년생이라서,  
당시의 조흔 풍습을 생각하면 조성에게 순위 누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보아, 그도 제자로 삼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목에 나오는 접화과란 말은 꽃과 과실나무를 접붙인다는 뜻인데, 사람을 교육하여 훌륭하게 키워내는 일에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조성이 박계현을 매우 아꼈다는 사실은, 일단 시의 수신자로 그를 특청했다는 것에서부터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를 지어준 때가 박계현이 그의 조카사위가 되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마치 접목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박계현을 훈육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시를 지어 권하고 격려한다’는 말로 엄하게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조성이 박계현을 얼마나 아꼈는지는 ‘寄朴啓賢姪婿(조카사위 박계현에게 부친다)’라는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목 아래에 달린 서문 격의 말에서 ‘나는 자네가 기약을 저버리고 미리 돌아가서 접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어 책망하였다. 그런데 자네의 부친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기까지 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으므로 시로 일러주어 풀어주고 겸하여 풍유하는 뜻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시는 박계현이 그로부터 어떤 질책을 듣고서 학업을 중단하고 가버리자 당황하여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쓴 것이다. 박계현의 아버지인 박충원은 1507년생으로 조성보다 무려 15세나 어렸으며, 조성을 존경하여 특별히 아들 교육을 부탁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박충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편지를 써서 해명했다고 하였다. 조성이 박계현을 질책한 내용과 박충원에게 어떻게 해명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제들에게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스승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 2) 親交型(B) - 친화와 교제의 희구

(B)면에 속한 시들은 전달을 작시의 동기로 삼으면서도 물상을 제재로 취한 것들이다. 여기에 속한 시들에서는 조성이 주로 친화와 교제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지은 것들로서, 특히 벗을 아끼고 그리워하는 정조가 깊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유형을 친교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시들은 형식적으로는 수신자의 시에 직접 차운했거나, 옛사람 특히 당나라 유중원의 〈早梅〉에 차운하여 지어준 형태가 많다. 시들이 대부분 자연물로 상대를 떠올리는 제재로 삼아 안부를 묻거나 애뜻한 그리움을 표한 것이니만큼, 여기에 속한 시들은 (A)면에 속한 시들에서와는 달리 비교적 밝고 선명한 소재와 시어를 사용하여 무겁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한 서간시의 형태를 띤다. 이 유형에 속하는 시는 40수가 넘어, 여타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물상에서 소재를 많이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조의 선비와 문인들 사이에서 시문을 통해 이루어진 친교에는 격조와 품격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도 물론 건조한 어투의 산문 편지가 오갔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문인들에게서는 그런 사무적인 어투의 산문체 서간보다는 어조가 은근하고 비유와 상징이 섞인 시를 주고받는 낭만적 방식이 선호되었다. 시를 통한 친교는 그 행위 자체로 멋과 품위가 있어 선비들의 성향과 정신세계에 잘 부합한다. 그렇게 주고받은 시편들 가운데는 담백한 맛과 잔잔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런 시들은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 샘솟을 때마다 암송하면서 사모의 정을 환기할 수 있는 특징점도 지녔다. 이는 산문 서간이 미칠 수 없는, 贈答詩만이 가질 수 있는 풍치이다. 그 가운데 자연물을 제재로 하여 지어진 시에서는, 그 자연물 자체가 단지 정서 환기의 매개로 기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 자체의 서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다음에 인용할 조성의 시들은 그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懷君不可見    자네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는데  
 還有照松月    돌아보니 소나무 위에 달이 빛나고 있었다네.  
 今朝滿床輝    오늘 아침까지도 침상을 가득 비추기에

永願無虧缺 영원히 이지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바랐지.

- 寄聽松(청송에게 보냄)

이 시는 조성이 聽松 成守琛(1493~1564)에게 보낸 것으로, 같은 제목으로 지어진 3수 가운데 2번째 수이다. 3번째 수에 나오는 ‘仲玉坡平下 築室爲老計’라는 구절로 보아, 그가 50세 무렵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仲玉은 성수침의 자였으며 파평은 파주의 옛 지명인데, 성수침이 파주로 낙향한 것이 1541년이기 때문이다. 성수침과 조성은 모두 조광조 문하에서 함께 수학하였고, 성수침의 일가인 成世平(1516~1590)이 조성의 제자였기에, 두 사람의 친분과 우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두 사람은 모두 기묘사화의 참화를 목도한 이후로 환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고 은둔을 택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애와 존중이 남달랐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20대에 만나서 4반세기를 깊이 사귀어 왔으니,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 그리는 정은 유별났을 것이다.

시의 첫 행에서 조성은 성수침을 늘 그리워하면서도 지주는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돌아보니 마침 달이 소나무 위에 떠 있었다. 성수침의 호가 聽松이었으니, 소나무를 보면서 성수침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이다. 여기에서 달은 조성과 성수침을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그런 소나무 위에 떠 있던 그 둥근달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까지 조성의 침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것을 본 조성은 자신이 성수침을 그리워하는 정이 그에게 전달되어, 성수침도 달을 통해 자신을 그리워하는 정을 전해온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따라서 달이 영원히 이지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바랐다는 말은, 둘 사이에 맺어진 깊고 끈끈한 우정이 평생 지속되기를 염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성수침이 서울에 살 때도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파주로 낙향하면 못 만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모의 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

은 더욱 절실했을 것이고, 그것이 서둘러 시를 지어 보내게 된 이유라고 하겠다.

早梅破冷蕊	이른 매화가 차가운 꽃망을 터뜨렸는데
靑枝如玉碧	푸른 가지는 옥처럼 푸르네.
橫月淡又淡	달빛을 가로질러 맑고 또 맑고
映竹白更白	대나무를 비추어 희고도 희네.
氷雪還嫌暖	빙설 속에 피어도 도리어 따듯함을 꺼리고
塵埃元自隔	속세는 원래부터 스스로 멀리했었네.
傍有吟詩者	그 곁에 시 읊는 이 있으니
亦知非俗客	속객이 아님을 알 수가 있네.

- 次柳子厚早梅韻贈僧元珪(유자후의 조매를 차운하여 중 원규에게 준다)

인용한 시는 당나라 柳宗元(773~819)의 〈早梅〉에 차운하여 元珪라는 스님에게 준 6수의 연작시 가운데 4번째 수이다. 조성의 문집에는 〈夜到僧舍〉와 〈宿中興寺〉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어, 그가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거나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夜到僧舍〉의 3,4행에 나오는 ‘主人方入定 剝啄爾爲誰(주인이 막 선정에 들었는데 문 두드리 는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구절은, 조성이 저녁에도 예고 없이 산사에 들 러 스님을 찾을 정도로 격의가 없고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임을 반증한 다. 물론 이 시만으로는 수신자인 원규라는 승려가 어느 정도로 도가 높았 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매화를 소재로 성리학자 조성과 시를 주고받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규는 유학에도 조예가 깊은 고승이었을 가 능성이 크다.

시인은 首聯에서 추위 속에 매화가 일찍 꽃망을 터뜨렸는데, 푸른색을 띠는 매화나무의 몇 가지는 옥처럼 푸르다고 하였다. 매화나무 가지는 일 반적으로 껍질이 울퉁불퉁한 줄을 그리며 터져 있어 깡마르고 수척한 사람

의 피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2,3년생 가지들 가운데는 간혹 매끈하게 옥 빛으로 곱게 뻗은 것도 있는데, 靑枝는 바로 그것을 지칭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화의 흰색과 가지의 푸른색, 매화가 핀 계절의 차가운 날씨와 옥이 지닌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다.<sup>19)</sup> 頷聯에서는 달을 가로질러 뻗은 가지에 달린 선명한 매화가 대나무의 푸른색을 만나 더욱 희게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했다. 또 頸聯에서는 얼음과 눈이 땅을 덮는 차가운 겨울에 피어났음에도 따뜻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속세와 단절하면서까지 고고한 자태를 지키는 매화의 지조를 부각했다. 그 두 연은 尾聯의 매화 옆에서 시를 읊는 이의 고고한 자태와 고상한 품격과 굴하지 않는 지조를 칭송하기 위해 동원한 꽃의 모습과 특성이다. 그러나 그 꽃은 단지 원규의 모습만을 비유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화 옆에서 시를 읊는 이는 원규와 시인 자신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원규와 화자 자신을 연결하는 매개물인 매화를 통해, 조성은 둘이 모두 고상하고 초속의 세계에서 깊이 통하는 지기임을 표현한 것이다.

新月上梧枝	초승달이 오동나무 가지 위로 떠올라
歸雲掩輕灑	흘러가는 구름에 가려 가볍게 빛나고
微風自天外	솔바람도 하늘 저 멀리서
遲遲來晚臥	저녁 잠자리로 살살 불어오니
忽然思我友	갑자기 내 벗들 생각이 나서
達旦歌永夜	아침에 이르도록 긴긴밤을 노래했네.

- 秋夜三首 呈仲韞膺之(가을밤이라는 시 3수를 중온과 응지에게 드림)

『양심당집』을 국역한 조남권은 仲韞은 黃琦(1498~1539)의 자이고 膺

19) 매화가 흰색이라는 것은 『청강시화』에서 이제신이 거론한 적이 있는 매화시의 한 구절 때문이다. 이제신이 언급했던 시구가 바로 조성이 원규에게 준 시 시의 5번째 수 頷聯에 나온다.

之는 鄭膺(1490~1522)의 자라고 보았다. 하지만 膺之는 정응이 아닌 鄭惟善(?~1553)으로 수정되어야 한다.<sup>20)</sup> 『國朝榜目』에는 중종 23년(1528)에 치러진 戊子式年試에 정유선이 乙科로 급제하였으며 그의 자가 膺之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中秋見月有感贈黃鄭八十一韻〉에 명시된, 조성의 부친이 평안도에 원님으로 나갔다가 돌아가셨다는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다. 실제로 趙守誠은 정주판관으로 부임했다가 1523년 임지에서 졸하였기 때문에, 조성이 1522년에 사망한 정응에게 부친의 별세 사실이 언급된 서간시를 지어 보낼 수는 없다. 이 시의 제목에서 ‘드린다는 의미의 글자 ‘보’을 쓴 이유와 조성이 이들과 동문수학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sup>21)</sup> 시의 어조를 보면 그들 사이가 아주 막역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이 시 이외에도 시제에 黃鄭이라는 그 두 사람의 성만을 적어서 보낸 시가 2수나 더 있고, 따로 황기의 시에 차운한 것도 3수가 있다. 이런 사실은 조성을 제외하고도 황기와 정유선이 서로를 잘 알고 매우 친숙했으며, 3인이 함께 어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6행의 시는 起(1,2행)-承(3,4행)-轉(5행)-結(6행)로 구성되어 시상을 전개해간다. 시인에게 정서적 반응을 환기하는 起에서 달이 떠오르는 속도

20) 鄭惟善의 생년은 미상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鄭世賢(1478~1557)의 장남이었으므로, 당시 남성들의 일반적인 결혼 연령을 생각하면, 대략 황기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중종 23년(1528)에 치러진 식년시에서 乙科 4위로 급제하였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가 바로 사망하였다.

21) 조광조의 『靜菴集』 〈靜菴先生續集附錄卷之五〉에 수록된 〈門生錄〉에는 정암의 문인 30인의 이름이 자호나 관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황기나 정유선은 물론 조성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조성은 영조 때 관직을 추증하는 교지에 ‘조광조 문인으로 학덕이 매우 높았다’고 명기되었으므로, 조광조의 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정암의 〈문생록〉은 그의 사후 한참 뒤에 쓰인 관계로 누락된 문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3인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조성이 황기와 정유선에게는 여러 번 시를 준 것으로 보아 관계가 막역했을 것은 틀림없는데, 나이 차를 고려할 때 그들이 동문수학한 벗이 아니었다면 이런 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

나 구름이 흘러가는 속도,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는 承에서 솔바람이 불어 오는 속도는 매우 느리며 여유롭다. 그 느낌이 주는 권태감과 감미로움은 조성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轉에서 생각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바로 그 두 벗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結에서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 친구들만 생각하며 밤새워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轉에서의 ‘忽然’이라는 시어는, 마치 물리학에서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벤투리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이 흐르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부분이다. 온갖 생각이 들거나 혹은 반대로 무념 무상의 상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왜 그 두 사람이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적어도 조성은 늘 그들과 친분을 유지했으며, 교우관계가 전혀 협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친교시를 통해서 보건대, 조성은 다정다감하며 벗들에게 충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自述型(C) - 간난과 고뇌의 토로

조성의 시 127수 가운데 전체의 30%에 근접하는 36수가 장시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20구 이상으로 된 시만도 22수나 되며, 100구를 넘는 것도 여러 편이다. 이런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들이 모두 전달 동기가 우세한 권계형이나 친교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증답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달 동기보다는 표현 동기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시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에서는 그 수신자를 권면하거나 각성시키려는 의도가 별로 개입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심사나 처지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욕구는 강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C)면에 배속된 이런 시들은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명칭을 自述型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시는 20수 안팎이다.

일반적으로 표현 동기가 우세한 시들에서는 독자가 구체적으로 상정되지 않는데, 조성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성에서 꽤 벗어나 있다. 표현 동기가 우세한 시에서도 제목에 수신자가 명기된 경우가 있으며, 제목에 수신자가 명기되지 않은 시에서도 마치 누군가를 상당히 의식하고 쓴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사를 제재로 취하면서도 표현 동기가 우세한 시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에는 조성이 자신의 신기한 처지나 질병에서 유래한 고통이나 번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시들에서는 물상에서 제재를 취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독자를 더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거나 울분을 토로하는 어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서 표현이 위주가 되는 짧은 시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처지나 경험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장시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서, 운문임에도 불구하고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인이 비유와 상징 그리고 압축미가 강조되는 절구나 율시가 지닌 미덕을 포기하고 장시를 쓴다는 말은, 결국 그 안에 담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사언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과 같은 시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전략....

平生虛棄千金贏	평생 천금의 재산을 헛되이 다 써버려
囊空甌倒無餘贏	전대는 비고 쌀독은 뒤집어도 남은 것이 없으니
榮華敢與人爭衡	감히 남들과 영화를 저울질할 수 있으랴.
歸矣有田深深耕	돌아가서 가진 밭이나마 깊이 갈아야겠네.
秋來刈熟擣香粳	가을이면 메벼를 베어 방아를 찧고
春還採野抽柔莖	봄이 오면 들에서 연한 나물 뜯어다가
當爐鴟坐自烹羹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수 국 끓여서
飮飽隄口甘如飴	주린 입에 단 옛처럼 배불리 먹고
藏深守雌安處貞	깊이 숨어서 암전하게 지조 잘 지키며

不負烟水雲山盟 자연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리.

...후략...

- 中秋見月有感 贈黃鄭八十一韻(중추에 달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 황과 정에게 주는 81운)

위의 시는 『양심당집』에 나오는 첫 번째 것이자, 문집에 수록된 시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7언시 165구로 되어 있다. 이 시는 친구인 황기와 정유선을 구체적인 수신자로 하여 보낸 서간시로서, 가을 저녁에 보게 된 달이 정서적 반응을 촉발한 것이므로 친교의 성격을 일부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매우 긴 분량 속에는 자신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시를 쓰기까지의 세월 동안 겪은 여러 사건과 경험과 감정들이 진솔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유형을 지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시를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정조는 평생을 따라다닌病魔와 상당 부분 거기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마음고생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은 격의 없이 기억해주는 벗들에게 감사하며 좋은 시편을 자주 보내달라는 부탁으로 끝맺음을 하였다. 결국 조성은 이 시에서 병고로 점철된 삶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펼쳐낸 셈이다.

인용한 부분은 집이 가난해져서 낙향을 고민하던 시점의 생각을 담았다. 빈 전대와 쌀독은 바로 것처럼 친금의 재산을 다 헛되이 써버려 극빈 상태에 빠지게 된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유이다. 그래서 감히 다른 이들과 영화를 저울질하면서 다툰 일이 없고, 단지 남은 몇 뼤의 논밭에다 벼를 심어 거두고 봄에는 산나물을 캐서 손수 국을 끓여 배불리 먹는 것을 달게 여기겠다고 하였다. ‘甘如飴’은 그런 마음가짐을 아주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산나물에서 엇처럼 단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꼭꼭 씹어야 하는데, 그것은 허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법이다. 그러면서도 압전하게 지조를 지키면서 자연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가난해도 선비로서의 지조는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이 시는 아마도 그의 나이가 30대 중후반인 1524년이나 1528년에 지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에 1523년에 타계한 부친에 대한 진솔 및 과거 급제 후 찾아온 벗들로부터 들은 遊街의 광경이 언급된다는 사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이다. 황기는 1524년에 치러진 別試文科에 급제했고, 정유선은 1528년에 치러진 式年試에 급제했다. 황기가 급제했을 때 조성의 나이는 서른셋이었고, 정유선이 급제했을 때는 서른일곱이었다. 그는 20대 중반에 심장병을 얻었지만, 병마는 더 어린 시절부터도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러니 30대 중후반쯤이라면 의식 속에서 늘 죽음이 한 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테고, 아무리 벼슬길을 단념했으나 과거에 급제한 친구들이 찾아와 의기양양하게 유가 광경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서 마지막으로 과거에 대한 고민도 해봤을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의 2구 뒤에 나오는 ‘進退兩途門逢扁(진퇴의 두 길목에서 닫힌 문을 만났는데)’라는 구절은 이 시점에서 그의 고민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敢將衰朽問蒼蒼	쇠하고 죽는 이유를 감히 푸른 하늘에 묻나니
鳧鶴如何異短長	오리와 학의 다리는 어찌서 길이가 다른가.
黃髮脩延無足樂	머리 누렇게 되도록 장수해도 즐거울 것 없지만
朱顏摧天亦堪傷	뺨 붉은 어린 나이에 요절해도 슬픔은 견뎌야 하지.
生來久久知多辱	태어나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많이 욕되는 일임을 알겠고
死去茫茫見足殃	죽어가서 아득하게 잊히는 것도 재앙임을 알겠나니
若見折長能補短	만약에 긴 것 잘라 짧은 데 보탬 수 있다면
不如分作兩中央	가운데를 갈라서 나누는 것이 나으리.

- 病中有感(병중에 느낌이 있다)

조성이 환로 대신 교육과 학문 연구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질병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병은 늘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근거였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고민거리가 아니

라, 인생 내내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화두였던 셈이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병마와 싸우거나 병으로 괴로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이 많다. 우선 동일한 운을 사용하는 36구로 이루어진 〈病憤詩〉라는 이름의 시 3수에, 운이 다른 16구로 이루어진 또 한 수의 시까지 더해진 장편의 연작시가 있다. 또 4수로 이루어진 〈病中題拒冬小盆〉이라는 연작시와 누군가에게 약을 보내달라고 보낸 〈乞藥〉이라는 시도 있다. 심지어 유종원의 〈早梅〉를 차운한 22수의 시에는 누군가에게 약을 구하는 은근한 뜻을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2)</sup> 그 외에도 여러 편의 시에서 병으로 괴로워하는 심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니 병의 종말이라고도 할 죽음에 대한 의식도 늘 함께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시는 제목을 보지 않으면 이 시가 병고로 인해 늘 죽음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그는 시의 수련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쇠하고 죽는 이유를 조물주를 대신하는 푸른 하늘에 물었다. 어째서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장수를 누리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본연적인 질문이다. 여기에서 학의 다리는 장수를 뜻하고 오리의 다리는 요절을 뜻한다. 장수와 요절의

22) 22수의 연작시는 모두 유종원의 〈早梅〉를 차운하여 쓴 것이다. 그런데 13번째 시부터는 처음에 쓴 제목인 〈次柳州早梅〉 대신에 〈求詩與藥 不獲答惠 復作十首 奉呈博咲(시와 약을 구하였으나 답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10수를 올려 웃음거리로 삼는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10수를 썼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연해서 〈若又不答 是不欲與吾言 吾不復言 其口敝矣 茲用別定一詩 以示志意(만약에 또다시 화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와 말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릴 것이다. 이에 따로 시를 한 수 지어 뜻하는 바를 보인다)〉라는 시도 한 수 보탬다. 조성이 수신자에게 시 이외에도 따로 편지를 동봉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물증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시 자체에 약을 구하는 뜻을 담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시를 받은 수신자는 〈謝酬梅詩 得二十四首〉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사언이 적힌 답시를 보냈는데, 이는 답시를 쓴 수신자가 22수를 24수라고 착각한 것인지 조성의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2수가 빠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차이는 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대조되고 있다. 하늘에 단도직입으로 물은 것은 장수와 요절이라는 운명은 누가 정했으며, 이러한 섭리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수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장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는 동안 내내 즐거운 일만 생기지는 않으며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현재 모습이었다. 물론 사람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도 슬프고 억울한 일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 일찍 별세하는 것도 보았고, 두 번째 얻은 부인마저 일찍 보냈다. 앞날이 촉망되는 조카들이 둘이나 어린 나이에 죽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무병장수하면 욕을 많이 당하지만, 죽어서 아득하게 잊히는 것도 죽은 자에게나 살아남은 자 모두에게 마주하기 싫은 재앙임을 체감했을 것이다. 경련에서는 이런 괴로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면 죽는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공평한 최선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수하는 사람과 요절하는 사람의 나이를 더하여 반을 나누는 것이다. 병마와 싸우느라고 지친 조성의 심정이라면 누구에게도 크게 손해랄 것도 없고 아깝지도 않은 딱 그 정도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났을 것 같기도 하다.

太極賦至理	태극이 지극한 이치를 부여하여
萬物同一軌	만물이 똑같이 하나의 법도 속에 있는데
人生稟美材	사람은 태어나며 아름다운 재주를 품 받아
賢愚初未異	현인과 바보가 처음엔 다르지 않다네.
皆由一也心	모두가 하나에서 유래한 마음을 가졌기에
耿耿元不昧	원래는 빛나서 어둡지 않아
觀物識省身	사물을 보면서 자신을 살필 줄 알고
察理知繩己	이치를 살피서 제 몸을 바로잡을 줄 알았네.
鑑空燭萬事	거울은 비었어도 만사를 다 비출 수 있어
影與形相值	그림자와 형상을 서로 만나게 하니

因明求是明    밝음으로 인하여 밝음을 구하면  
 明明皆自至    밝고 밝은 것들이 모두 저절로 이르네.  
 ....후략....

- 養心堂詩(양심당 시)

조성은 養心堂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취해 호를 양심당이라 하였다. 인용한 시는 바로 그 양심당을 읊은 58구의 장편으로, 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성리학적인 심성론을 차분하게 시로 풀어냈다. 이 시는 인간의 심성과 행위에 관한 생각을 제재로 삼아 자신의 성리학적 이론을 펼쳐낸 것이라서, 단지 간난하고 신산한 처지나 질병으로 인해 촉발된 고통과 번민을 가감 없이 토로한 앞서의 시들과는 이질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장에서 구획한 틀 안에서 보자면, 인사를 제재로 취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기에, 지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1,2구에서 태극이 지극한 이치를 부여하여 온갖 사물은 하나의 법칙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賢愚와 상관없이 똑같은 천부적 능력을 품 받는다. 그런데 그의 후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타고난 천품이 탁해져서 바보가 되지 않도록 늘 갈고 닦으며 수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밝고 밝은 것이 저절로 이르게 되어 현인이 될 수 있다. 조성은 이처럼 당대의 주류적 철학인 성리학에 투철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문하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배움을 청했던 것이다.<sup>23)</sup>

그런데 조성은 성리학을 포함한 다방면의 학문에 정통한 학자였음에도

23) 조성의 문인인 형조판서 심수경이 지은 <養心堂集跋>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以育才爲樂 善誘不倦 一時才子萃于門下 本之經史 間以諷詠 如時雨之化知 向方成立者頗多(인재 육성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잘 이끄시니, 일시의 재자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경사를 기본으로 하시고 간간이 시를 읊도록 하시니, 마치 때맞춰 내리는 비가 만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향방을 알고 입신하는 자들이 자못 많았다.)’

불구하고, 깊이 있게 논증한 성리학적 저술을 남기지지는 않았다. 다만 『양심당집』 제2권의 〈與濫之書〉라는 글에 있는 단편적인 언급<sup>24)</sup>을 통해서 피상적으로나마 짐작은 해볼 수는 있다. 이 글은 濫之라는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보낸 서간문이다.<sup>25)</sup> 이 글에서 조성은 ‘음양과 오행은 하나라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사람과 만물은 모두 그 하나에서 理를 받아서는 性으로 삼고 氣를 받아서는 形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理가 性이고 氣가 形인데, 이 둘은 태극이라는 근원 속에 혼용되어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 사람과 만물은 모두 理를 받으면 성이 되고 氣를 받으면 형이 된다. 그 차이는 단지 천품의 많고 적음과 분수의 통하고 막힘의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 답의 요지이다. 이것은 이와 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고 무엇을 받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 주장은 主理論의 理氣一元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sup>26)</sup> 위에 인용한 시는 바로 자신의 그런 성리학적 견해를 시로 풀어낸

24) 太極之中 具陰陽五行之理 陰陽一五行 五行一陰陽 陰陽不離五行 五行不離陰陽 其原只是一而已矣 人與物同得一理以爲性 同受一氣以爲形 但有稟受分數多寡之不齊 通塞之有間耳(태극 속에는 음양오행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으니, 음양은 하나의 오행이고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다. 음양은 오행에서 떠나지 못하고 오행은 음양에서 떠나지 못하는데, 그 근원은 다만 하나일 뿐이다. 사람과 만물은 똑같이 하나의 이를 얻어서 성을 삼고 하나의 기를 받아서 형을 삼는다. 다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품과 분수의 많고 적음에서 가지런하지 않고, 통하고 막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다.)

25) 편지를 濫之足下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조성과는 비슷한 연배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끝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종~명종조에 치러진 모든 과거시험의 급제자 명단을 검색하였으나, 濫之를 자호로 쓰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과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학문 연구에만 관심을 가졌던 유일이 아닌가 한다.

26) 조성의 성리학적 견해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 시가 있는데, 〈次韻詠性〉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 시에서 ‘靜觀無物始 此理即具在 借問鏡中人 匣裡誰與對(고요히 관조하니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도 / 이 이치는 갖추어져 있었네. / 묻노니 거울 속에 있는 이여 / 거울이 갑 속에 있을 때는 누구와 마주하는가?)’라고 읊었다. 본연의 것인 사람의 얼굴은 거울이 있으나 없으나 존재하지만, 거울이라는 氣의 작용이

것이다.

#### 4) 自照型(D) - 안분과 자중의 다짐

아마도 문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시는 몰상 가운데서 제재를 취하고 표현 동기가 우세한 것들이 아닐까 한다. 그만큼 항상 목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사물이나 현상은 시의 소재가 되기에 적절하고, 거기에서 착상한 개인적 정서를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사를 관조하거나 자신을 성찰하는 주제적 지향성을 가진 시들 가운데도 몰상에 관한 것에서 제재를 취한 것이 아주 많다. 그 가운데 특히 물이나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할 수 있는 소재나, 달이나 화초처럼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소재는 개인의 처지나 심사를 형상화하는 제재로 선호되었다. 아무래도 떠들썩한 세상일이나 인사에 관한 것들은 중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볼 소재로는 적절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물을 관조하거나 자신을 성찰하는 주제적 지향성을 가진 시들이 속한 범주가 바로 (D)이다. 조성의 시에는 이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 가장 많아서 대략 50수 정도에 이르는데, 비중으로는 약 40%에 달한다. 여기에 속한 시들은 주로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제재로 취하여 자기를 관찰하고 반성하는 정서를 표출하므로, 그 유형을 自照型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시에는 파안대소하게 만드는 즐거움이나 활기차고 건장미 넘치는 명랑함이 거의 없다. 그의 시에는 대개 쓸쓸하고 애상적인 정조가 깔려 있어서,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그가 늘 병마와 싸워 왔고 죽음에 대한 의식이 강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형에 속한 시에

---

함께해야만 理가 드러난 형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理發氣隨라는 主理論의 理氣一元論에 가깝다고 본다.

는 사물을 관조하면서 안분과 자중을 다짐하는 것이 많다. 이는 조성이 일찍부터 벼슬길을 단념하고 학문과 교육과 양생에 뜻을 둘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荏苒光陰能幾時    흘러가는 세월을 얼마나 더 견딜까.  
 滿園春色夢依依    온 동산의 봄빛이 꿈에 본 듯하구나.  
 可憐屋角蜘蛛網    가련케도 처마 끝 거미줄에는  
 留得殘花一片飛    날리던 시든 꽃잎 하나 걸려 있구나.

- 惜春(봄을 아쉬워함)

이것은 처마 끝에 쳐진 거미줄에 꽃잎이 걸린 것을 보고 지은 경물시이다. 경물시는 일반적으로 先景後情으로 전개되는데, 이 시에서는 先情後景으로 전개되어 구성적으로 반대 방식을 취했다. ‘이것을 보니 내 마음이 어떠하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데 이것이 보인다’에 가까운 구성인 것이다. 이는 소재가 정서를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한 정서를 소재에 투영하는 방식이다. 항상 내면을 지배하는 정서가 고착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전개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시에서 시인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정서는 바로 ‘惜’, 즉 아쉬움이다. 늘 그런 애상적인 정서가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에, 일상적으로 목도하는 평범한 소재에도 바로 그 정서가 표출될 수 있었다. 이런 도치적 구성을 통해 감정과 소재를 모두 다 전경화함으로써, 시를 둘러싼 핵심적인 정조인 ‘惜’이 훨씬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조성은 첫 구에서 세월을 뜻하는 말인 ‘荏苒’과 ‘光陰’을 중첩해서 썼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짙은 아쉬움과 애절함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能其時’는 과거형으로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새기는 것보다, 미래형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새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시인의 시선은 과거를 향해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있다

는 뜻이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시간마저도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패배감과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는 시선이다. 이것은 꿈같다는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꿈은 현실이 아니며, 꿈속이 화려할수록 깬 뒤에 마주하는 현실은 더 허망한 법이다.

그의 이런 감정 상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殘花’이다. 이미 생명을 다하여 시든 그 꽃잎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미줄에 걸려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상황이라면, 그 애절한 감정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거미줄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운명이며, 거기에 걸린 꽃잎은 바로 운명에 예속된 병약한 처지의 자신이었다. 조성은 평생 병환을 겪어지고 살아왔기에,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꽃잎이 날려 거미줄에 걸린 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습이 모두 흑독한 운명의 결과물임을 고요히 관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여생을 분수를 지키고 자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長亭天欲暮	장정 위 하늘은 저물어 가는데
佳趣坐來成	찾아와 앉아서 아름다운 흥취를 본다네.
鳥入牆邊竹	새는 단장 옆 대나무에 들고
魚游水上萍	물고기는 부평초 밑에서 노니네.
微微山霧起	산에는 조금씩 저녁 안개 일어나고
漠漠渚雲生	물가엔 조용히 구름이 깔리네.
人去烟橫處	사람이 가버리고 저녁연기만 날리는 곳에
寥寥一犬聲	쓸쓸하게 한 마리 개 짖는 소리

- 孔巖八景 中 暮景(공암팔경 중 저물녘 경치)

인용한 시는 〈孔巖八景〉 가운데 제7수인 〈暮景〉이다. 〈공암팔경〉은 그것을 다 읊고 난 느낌을 적은 〈詠八景有感〉까지 포함하여 모두 9수로 되어

있다. 孔巖은 말 그대로 구멍이 뚫린 바위라는 뜻인데, 이것은 조성이 살던 한강 남쪽의 서강 나무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는 일반적인 八景詩들이 보여주는 투식성에서 벗어나 있다. 팔경시들은 대개 山市靑嵐, 煙寺晚鐘, 漁村落照, 遠浦歸帆, 瀟湘夜雨, 平沙落雁, 洞庭秋月, 江天暮雪로 구성된다. 팔경시들은 이처럼 특정한 공간과 그 공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뽑아 제목으로 다는 반복성을 띠는데, 이는 팔경시의 창작과 향유에는 뚜렷한 정형성이 있다는 뜻이다.<sup>27)</sup>

그런데 조성의 팔경시는 공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리에서의 시간 변화와 그에 따른 정경을 그리고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다. 시인의 움직임은 최소화되며, 시선조차 고정되어 있어서 매우 정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그가 몸이 병약하며 삶 자체가 활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는 〈詠八景有感〉의 경련에서 ‘昔年歡意無斯句 今日愁懷有此詩’라고 읊은 데서도 바로 확인된다. 이 두 구는 ‘예전 기쁨 적에는 이런 시구가 없었는데 오늘 시름 속에서야 이 시가 나오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에겐 시를 짓는 것조차 시름 속에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정조는 더욱 애상적일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깊은 시름과 쓸쓸함은 그로 하여금 인생을 더 잘 성찰하고 관조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위의 시에서 그는 저물녘에 공암 앞에 있는 정자에 나갔다. 長亭은 멀리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을 만한 쉼터이다. 그런데 저녁이라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전송할 만한 시간도 아니며,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때이다. 게다가 찾아올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가 그 시간에 정자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결국 처지나 심사가 공허

27) 그 가운데 『동문선』 20권에 실린 李仁老의 〈宋迪八景圖〉에 실린 〈어촌낙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草屋半依垂柳岸 板橋橫斷白蘋汀 日斜愈覺江山勝 萬頃紅濃數點靑(버들가지 늘어진 언덕엔 초가집이 반쯤 기울었고 / 날다리는 부평초 뜬 물가에 서 끊어졌네. / 해지니 강산의 경치가 더 뛰어난을 알겠는데 / 만경이 짙붉는데 서너 점 섬이 푸르구나.)

하며 평온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런데도 새들은 대나무로 날아들고 물고기들은 부평초 밑에서 노닐고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은 일상적이고 순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생명체가 각기 설 곳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 하나로, 저녁이면 절로 생겨나는 안개와 구름만이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적이 끊어지고 혼자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그는 주인이 아닌 나그네 신세에 불과했다. 개는 주인을 향해서 짓지 않는 법이니, 개가 짓는 것은 낯선 이 즉 시인 자신을 향해 짓는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조차 나그네 같은 신세임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고독과 소외감을 표출했다고 하겠다.

方塘來照天心月	네모난 연못에 중천 달이 비추니
瑩澈澄光淨似磨	투명하고 맑은 빛이 갈아놓은 듯 깨끗하네.
欲識此心萌起處	이 마음이 싹 트는 곳을 알고 싶다면
須看波面乍風過	모름지기 바람이 스쳐 가는 물결을 보아야 하리.

- 養心池(마음을 기르는 연못)

조성은 집 주변에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이름을 養心堂이라 붙였으며, 그 앞에 연못을 파고 養心池라고 하고 거기에 심은 연꽃을 養心花라고 하였다. 그는 거문고 명인으로서 자신의 악보까지 남긴 바 있는데, 그 거문고의 이름조차 養心琴이라 불렀다. 끝내는 자신의 호마저도 養心堂이라 지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시를 지을 만큼, 양심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강박시킬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 그가 양심당에 제한 시 <題養心堂>에서는 맛없는 밥일지라도 배부르면 되고, 거친 벼웃이라도 춤추 않으면 되고, 답답함을 풀어줄 탁주와 수심에 찬 얼굴을 풀어줄 거문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모르고 돈만을 추구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여기에 나타난 성격은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전형적

인 선비의 그것이다. 거의 집착으로 여겨질 만큼 매달렸던 養心은, 마음을 기른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대단히 유학적인 관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인 삶을 위한 자성과 성장의 과정을 중시하는 修養論의 핵심이다.

시에서 조성은 양심지에 고인 물을 비추는 달빛과 바람이 스치는 수면을 보면서, 마음을 갈고 닦아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 본다. 물은 본연적으로 맑고 투명하지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양과 색깔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유약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이 주변 환경과 마음 씩씩이에 의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물을 혼탁하고 부패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늘 맑은 물로 바꿔주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음이 혼탁하게 되지 않으려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절차탁마하며 본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풍파를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불면 수면이 요동쳐서 달빛을 비출 수가 없다. 이것은 마음에 풍파가 일어서는 수양을 할 수도 없고, 고요하게 마음을 관조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후구에서 이 마음이 싹튼 곳을 알고 싶다면 바람이 잠깐 스쳐 가는 수면을 보라고 한 것은, 인간이 본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외물에 의해 마음이 지배되지 않도록 늘 수양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항상 양심지에 비추는 달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내면을 성찰했을 조성에게, 養心은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오롯이 온축된 주제어라고 하겠다.

### 3. 맺는 말

이상에서 조성의 시가 지닌 시 세계의 전모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그의 시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성격적 특징을 다

각도로 검토하였다. 먼저 유형 구분의 틀을 만들기 위해 작시의 동기를 전달이 우세한 것과 표현이 우세한 것으로 나누었고, 주제 형상화를 위한 핵심 제재를 인사에 관한 것과 물상에 관한 것으로 나누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그의 시를 자연적으로 전달 동기가 우세하면서 인사를 제재로 한 것, 전달 동기가 우세하면서 물상을 제재로 한 것, 표현 동기가 우세하면서 인사를 제재로 한 것, 표현 동기가 우세하면서 물상을 제재로 한 것이라는 4개의 범주로 구획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시를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였으며, 실제로 각 유형에 속하는 시를 분석하면서 그 유형의 명칭도 부여하였다. 그렇게 구분된 유형이 각각 勉勵와 覺醒을 권유하는 勸誡型, 親和와 交際를 희구하는 親交型, 艱難과 苦惱를 토로하는 自述型, 安分과 自重을 다짐하는 自照型이었다. 나는 이런 유형화 작업은 적어도 조성의 시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했다고 자평한다.

조성은 뛰어난 학자이자 교육자이며 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깊이 있는 학문적 저술이나 방대한 시문을 남겨주지 못했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며 소인묵객들을 감동시킬 만한 빼어난 서정시를 마음껏 지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당대에도 그의 시가 유명하고도 폭넓게 회자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냉정히 말해서 그의 시는 형식과 내용과 기법 면에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하기 어렵고, 한 시대나 경향을 대표하는 전형성을 지녔다고 고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보편성과 전형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나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서정시만을 기리는 평가 기준에서라면, 그의 시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편성과 일반성은 특수성과 개별성이 함께 거론되어야만 그 의미가 사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고를 전환하여 개성과 특수성이 소중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기왕에 무시되거나 무가치하다고 버려졌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다가와 전혀 다른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에서 특정한 작가나 작품이나 주제나 경향이 보여주는 이질성과 특수한 국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조성의 시에서는 형식적으로 장시의 비중이 높고 수신자에게 권면과 각성을 촉구하거나 자신의 고통과 빈민을 토로하는 서간적 성격을 지닌 것이 많고, 이것이 바로 이질적이고 특수한 국면에 해당하기에 그의 시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조성은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던 데다가 20대 중반에 얻은 심장병 때문에 벼슬을 통한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의 20대 말에 터진 기묘사화에서 스승 조광조가 희생되었고, 그와 가까운 친지나 조정의 인사들이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그를 둘러싼 이런 환경과 처지는 그에게 은둔의 길을 선택하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그로 하여금 치열하게 성리학을 연구하고 다양한 분야를 천착하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 또한 생활고와 병고에 찌든 처지와 심사는 한편으로 동병상련의 친우들과 교류하며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또 영재 교육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인생 여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수성이 그의 문학에서 서간시리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창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독특한 양식의 창안은 장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으나 하고 싶은 말은 많았기에 그 사연이 담긴 시가 길어졌고, 메시지를 진술하면서도 온화하게 다듬다 보니 다정다감하며 성찰적인 어조의 서간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진지한 학문적 태도와 개인적인 삶의 신산함이 짝게 뻗 애상적이고 자성적인 시가 많다. 생활고와 병고는 알게 모르게 그의 시에 고뇌의 토로와 신세의 한탄이라는 정조가 깊이 배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 표현된 정서는 외부를 향하여 힘껏 뻗어나가기보다 내면을 향하여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우가 많으며, 밝고 경쾌한 분위기보다는 어둡고 진중한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그가 처했던 개인적이고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나는 그가 보여준 이런 생활밀착형 시는 전란의 참화를 겪고 황폐한 환경 속에서 신산스럽게 살아가야 했던 임란 이후의 시인들에게서 빈번하게 보이는 사실주의적 경향의 시를 견인한 선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성이 한국문학사에 공헌한 점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조성의 시를 검토하고 그의 시가 보여준 유형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더 많은 시를 거론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난 다양한 면모를 온전하고도 충분히 살피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의 호와도 관련되는 ‘養心’이란 주제어를 깊이 천착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소략하게 언급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그의 매화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도 많이 아쉬운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이어가기로 한다.

## 참고문헌

『國朝榜目』  
 『東文選』  
 『明宗實錄』  
 『養心堂集』  
 『龍門先生集』  
 『靜菴集』  
 『中宗實錄』  
 『清江詩話』  
 『平壤趙氏大同譜』  
 『學圃集』

- 권혁명, 「절효 성수종의 생애와 시세계」, 『동양한문학연구』 34, 동양한문학회, 2012, 67~76쪽.
- 변영희, 「『양심당집』에 표현된 주역의 교육적 요소 연구-양심당의 주역 관련 시를 중심으로-」, 『白岳論叢』 1, 동방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8, 305~336쪽.
- 신익철, 「조선시대 매화시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165~216쪽.
- 안은수, 「16세기 성리학자 조성의 양생론」, 『우계학보』 37, 사단법인 우계문화재단, 2019, 122~147쪽.
- 양승경, 「양심당 조성의 생애와 음악관-시-문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7, 한국음악학회, 2010, 189~210쪽.
- 지승중, 「『琴軒集』 해제」, 『남명학연구』 6,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6, 177~197쪽.

## ABSTRACT

## The Poetic World of Yang-sim-dang Cho Seong

Cho, Yong-ho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the poetic world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literature of Cho Seong, a literary scholar in the early Choseon Dynasty from Joongjong to Myeongjong. Before the full-fledged study, I created a framework to categorize his poems according to motive by using the motive for writing the poetry and the subject matter that was key to embodying the subject of the poetry as the reference line for the compartment. Based on this reference line, I created four categories as follows. Type A: The motive of delivery prevails, and the subject matter is about human beings. Type B: The motive of delivery prevails, and the subject matter is about material phenomena. Type C: The motive of expression prevails, and the subject matter is about human beings. Type D: The motive of expression prevails, and the subject matter is about material phenomena.

All four categories involved each type, and the poet expressed his intention and emotion similarly in the poems assigned to each. In Type A, poems mainly showed the intention to encourage the recipient to be diligent and wakeful. In Type B, the sentiment of aspiring to intimacy and companionship with the recipient was the main focus. In Type C, the poet's voice was prominent in expressing his hardships and anguish. In Type D, the assurance of self-sufficiency and prudence formed the principal emotion.

In his poetry, Cho Seong faithfully represented the reflective human figure living in personal suffering and unhappy times. This aspect was deeply applicable to him, as despite being afflicted with several diseases throughout his life, he devoted his life to academic exploration and student education. Besides producing typical literary works, he wrote poems that were unconventional in terms of form, content, and theme

due to his extraordinary personal and historical condition. In particular, epistolary poetry was a disparate and specific style that stands out in his literature. Simply by creating this form, h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Korean literature.

**Key Words**

Yangsindang, Cho Seong, the motive for writing poetry, key subject matters, epistolary poetry

논문투고일	: 2022.03.30.
심사완료일	: 2022.04.30.
게재확정일	: 2022.05.02.